

# numbers 제 90호



## 주요 내용

2021. 04.02

### 1. 이번 주 주제 : [학력 격차 실태와 코로나19]

- 한국 사회 현실, '개천에서 용 난다!' 2006년 7.5% → 2018년 6.4%  
(성적 최상위 4% 학생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에 속하는 비율)

###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글로벌 수면 조사]

- 세계인,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 '휴대폰 본다' 46%

#### [직장인 '임금 vs 물가 vs 아파트' 인상률]

- 직장인, 서울 아파트 구입하려면 22년 월급 모두 저축해야!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다음세대 통계

# 한국 사회 현실, ‘개천에서 용 난다!’

## 2006년 7.5% → 2018년 6.4%

(성적 최상위 4% 학생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에 속하는 비율)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업적을 이루거나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경우를 ‘개천’과 ‘용’에 빗댄 속담이다.

이른바 가진 것 없고 뺏도 없는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공을 꿈꿨다. 우리 사회에서 그 노력의 대상은 ‘공부’와 ‘학벌’이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매진했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생각으로 비록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전적인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부모의 투자만큼 자녀가 상위 계층으로 발돋움하고 있을까?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90호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격차 실태와 코로나19의 학력 격차 영향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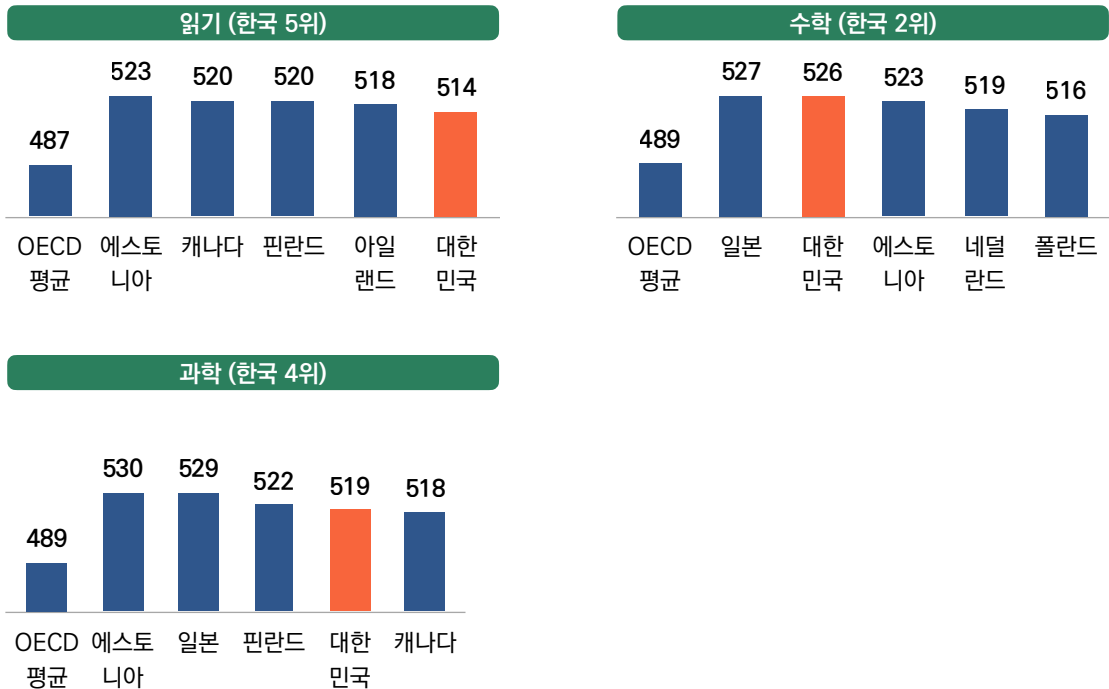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 세계 최상위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마다 만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를 하는데, 2018년 PISA에서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 모두 OECD 평균 보다 27~37점 이상 높은 점수를 얻어서 37개국 가운데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었다.
-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수학에서도 우리나라는 526점으로 가장 높은 1위권의 점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 점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 : 평균 점수 상위 5개국(OECD 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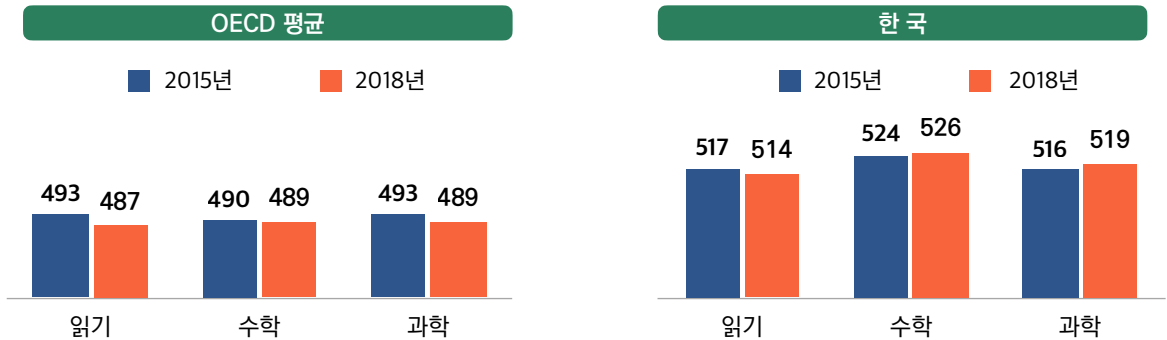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OECD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결과 발표', 2019.12.3.(OECD 회원 37개국, 비회원 42개국 총 79개국 만15세 이상 학생 71만 명 조사)

## ● 학생 학업 성취도, 세계는 하락 우리나라는 향상!

-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OECD 국가들은 3과목의 평균 점수가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읽기’는 3점 감소했으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점수가 증가해서 ‘OECD 평균’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평균 점수 추이(OECD vs 한국) (점)



\*자료 출처: 교육부, 'OECD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결과 발표', 2019.12.3.(OECD 회원 37개국, 비회원 42개국 총 79개국 만15세 이상 학생 71만 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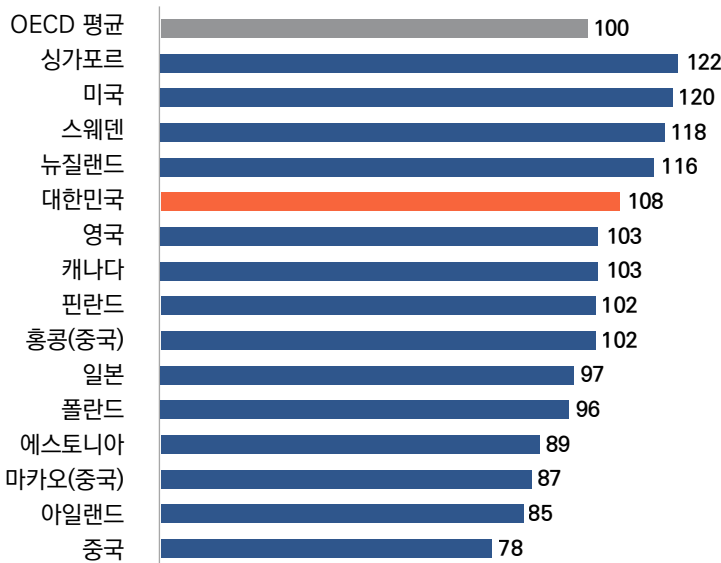
## 2



## 우리나라 학력 격차 OECD 평균보다 심해!

- 세계 각국 학생의 학업성취도(읽기 분야) 분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8%로 OECD 평균(100%)보다 높았다. 이는 7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6위로서 우리나라는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OECD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학력 격차도 평균보다 큰 국가에 속해 있다.

[그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 : 학생 분산 비율(학교 내 및 학교 간, 읽기 점수 상위 15개국) (%)



\*자료 출처: 교육부, 'OECD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결과 발표', 2019.12.3.(OECD 회원 37개국, 비회원 42개국 총 79개국 만15세 이상 학생 71만 명 조사)

\*\* 분산 비율: 분산은 학생 성적 평균값에서 각 학생이 성적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값으로서 분산이 작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에 몰려 있다는 것이며, 분산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산이 작을수록 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적다는 것이고 분산이 클수록 성적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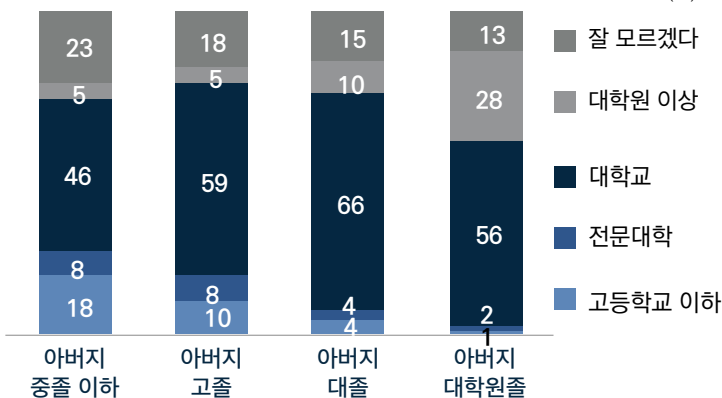
3



##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 목표 동기 부여 잘돼!

-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학생(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 장차 고등학교 학력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18%였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목표로 한 비율은 5%였다. 반면에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한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았고 아버지처럼 대학원 이상을 목표로 한 비율이 28%였다.
- 즉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목표로 하는 학력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림] 학생이 원하는 학력 목표(아버지 학력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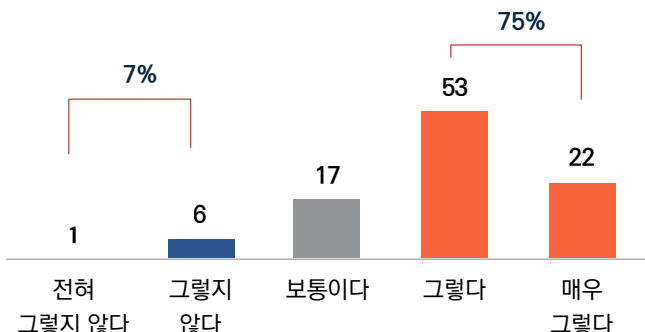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20 한국교육중단연구', 2020.12.(고등학교 2학년생 6,120명 조사, 2019)

## ●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도 높다, 75%

-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에 대해 일반 국민 4명 가운데 3명 꼴인 75%가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서 부모 경제력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다'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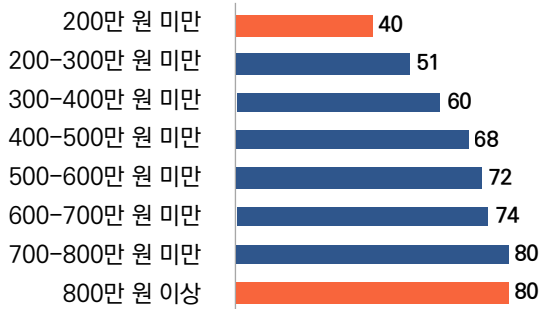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2020.12.(전국 만19~70세 미만 남녀 2,500명, 온라인 조사, 2020.5.2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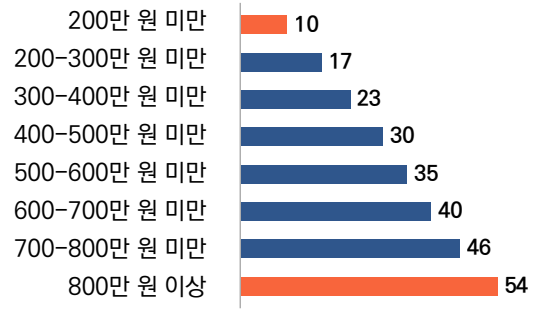
## ● 부모 경제력 높을수록 사교육 많이 시켜

- 조사 대상 가구 중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인 월 평균 '200만 원 미만' 가구의 40%가 사교육을 시키고 학생 1인당 1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 평균 '8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80%가 사교육을 시키고 월 평균 54만 원을 지출하여 '200만 원 미만' 계층보다 5배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올라가고 1인당 사교육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



[그림]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019.12.(초중고 학부모 약 80,000명, 인터넷(모바일 포함)조사와 대면 조사 병행, 2019.5.23.-6.13, 2019.9.19.-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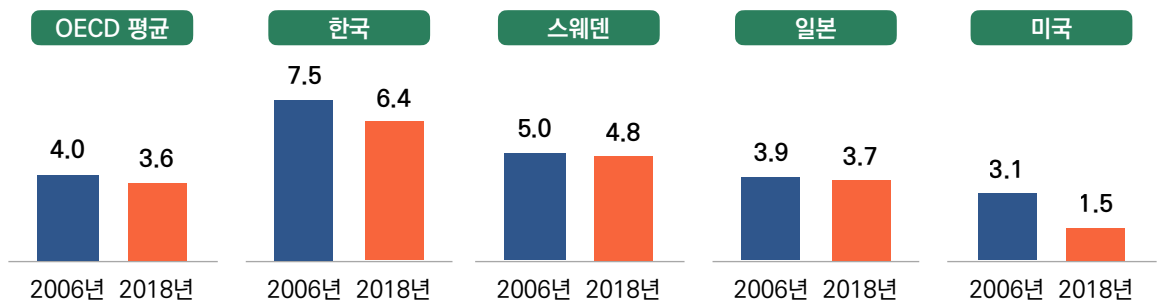
## 4

### 한국, '개천에서 용 난다' 2006년 7.5% → 2018년 6.4%

(성적 최상위 4% 학생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에 속하는 비율)

- 학습 분야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 즉 '개천 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내신 1등급 비율인 성적 최상위 4% 학생 가운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에 속하는 비율을 산출했을 때 우리나라는 6.4%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OECD 평균 3.6%보다 높았다. 일본은 3.7%, 미국은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 아직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개천 용'의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2006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7.5%에서 6.4%로 1.1%p 감소해 과거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교육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주요 국가별 '개천 용' 비율(최상위 성적 학생 4% 기준) 변화 및 비교 - 전체 과목\*\* (%)



\*자료 출처 : 직업능력개발원, 'PISA를 활용한 국가별 시점별 교육 형평성 측정방안 연구', 2020.11

\*\*성적 최상위 4% 학생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에 속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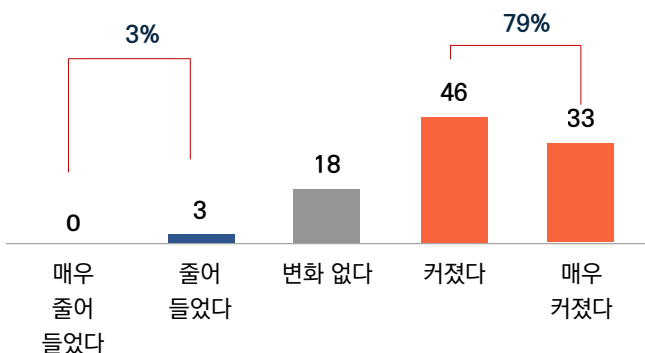
5



##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 더 커져 79%

-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의 대부분(79%)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고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 정도였다.
- 부모의 능력에 의해 학습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그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림] 코로나19 원격 학습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 인식(초중고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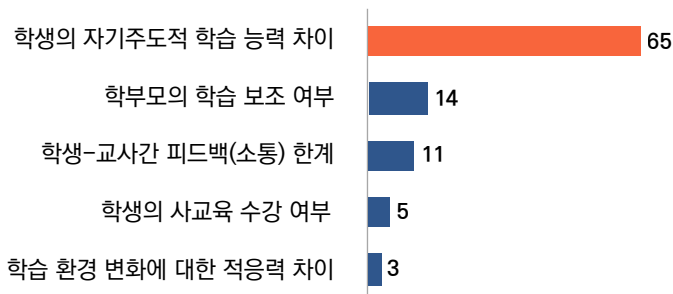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2020.11.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51,021명, 온라인 설문, 2020.7.29.-8.1)

### ●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65%

-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습 격차의 원인에 대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라고 65%가 응답해서, 교사의 감독을 덜 받는 원격 수업에서 제 3자의 지원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와 능력 그리고 의지가 학습 격차를 불러 온다고 보고 있다.
-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4%)나 '사교육'(5%)은 코로나19에서의 학습 격차에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교사들은 응답했다.

[그림] 코로나19 원격 학습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 원인 인식(초중고 교사, 상위 5위) (%)



\*자료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2020.11.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51,021명, 온라인 설문, 2020.7.29.-8.1)



## 시사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1960~70년대에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있었다. ‘우골탑’은 가난한 농가에서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 전답과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수많은 농촌 부모의 소 편 돈으로 대부분 대학 건물이 지어졌음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 단어가 상징하듯 부모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데에 모든 것을 걸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모가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력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3쪽). 오죽하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한국 교육을 닮을 것을 주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많지만 적어도 시험 성적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육 격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교육 성취도가 세계적으로 높지만,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4쪽). 한 교실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면서 학교 교육은 어중간한 교육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더 공부를 잘 시키려는 부모의 욕심이 없어지면서 사교육이 범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력 격차가 생길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 배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먼저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학습 동기 부여가 더 강해지고, 부모의 경제력이 크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입학생을 분석하면 지역적으로는 부자가 많이 산다는 서울 강남 출신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조선일보 인터넷판, 2020.4.21.자, ‘서울대 합격... 강남·서초 비중 높아져’).

경제력 격차가 학력 격차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6쪽) 더 좋은 학벌을 가지면 사회적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소위 명문 대학을 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다. 소수의 사람들이 대를 물려 가면서 사회적 상위 계층을 차지하고 다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공부를 못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해도 성공한 인생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관이 ‘성공’에 모아지는 사회는 일부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는 ‘성공’이란 목표 외에도 ‘올바른 삶’, ‘가치있는 삶’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있는 삶’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느 사회학자는 ‘성공’이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상에서의 성공 개념과는 다른 의미이다.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코로나 시대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글로벌 수면 조사>  
세계인,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 '휴대폰 본다' 46%
2. <직장인 '임금 vs 물가 vs 아파트' 인상률 >  
직장인, 서울 아파트 구입하려면 22년 월급 모두 저축해야!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2021 글로벌 수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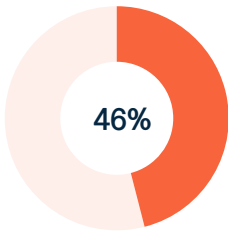


## 세계인,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 ‘휴대폰 본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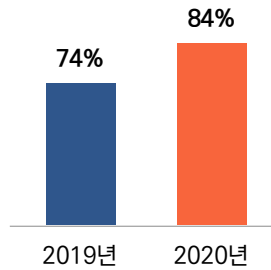
- 필립스가 세계 수면의 날(3월 19일)을 맞아 발표한 13개국 국민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수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성인)의 절반 가까이(46%)가 잠자기 전 마지막 행동이 ‘휴대폰 보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 또한 응답자의 84%가 잠자기 전과 잠이 깬 뒤 침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년 전 74%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잠자기 전 마지막 행동

휴대폰 보는 것



[그림]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깬 뒤 침대에서 휴대폰 사용 비율



\*자료 출처 : Philips, ‘2021 Global Sleep Survey’, 2021. 3.10 (13개국 18세 이상 성인 13,000명, 웹 조사, 2020.11.1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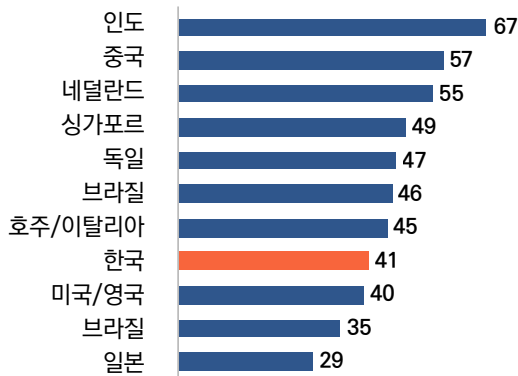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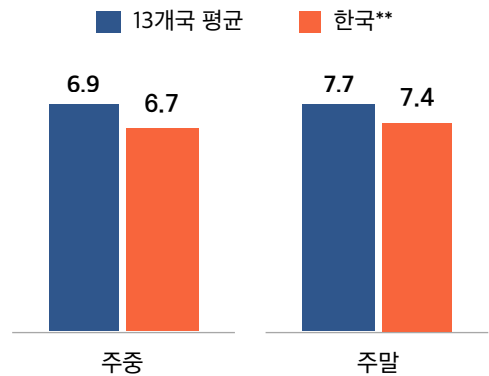
## 2020년 한국인 성인 수면 만족도 41%로 13개국 중 중하위권

- 한국인의 수면 만족도는 41%로 13개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인 9위에 위치했다. 1위는 ‘인도’로 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최하위는 ‘일본’으로 29%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13개국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 6.9시간, ‘주말’ 7.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주중’ 6.7시간, ‘주말’ 7.4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짧아, 대체로 한국인들의 수면 시간이 다른 국가보다 짧은 편이고, 따라서 수면 만족도도 높지 못한 편이다

[그림] 13개국 수면 만족도 (%)



[그림] 13개국 평균과 한국의 수면 시간 (시간)



\*자료 출처 : Philips, ‘2021 Global Sleep Survey’, 2021. 3.10 (13개국 18세 이상 성인 13,000명, 웹 조사, 2020.11.12.-12.07)

\*\* 한국 평균 수면시간은 2019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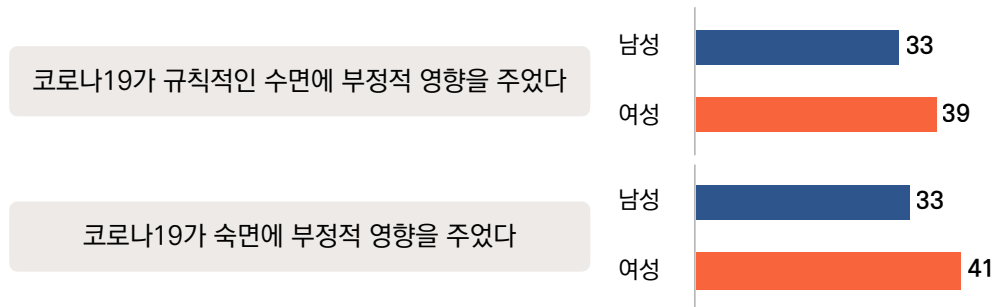
3



##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 장애 더 겪는다!

- 코로나19가 남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코로나19가 규칙적인 수면에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에는 ‘남성’ 33%, ‘여성’ 39%, ‘숙면을 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에는 ‘남성’ 33%, ‘여성’ 41%로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에 있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 응답률, 남성 vs 여성)



\*자료 출처 : Philips, '2021 Global Sleep Survey', 2021. 3.10 (13개국 18세 이상 성인 13,000명, 웹 조사, 2020.11.1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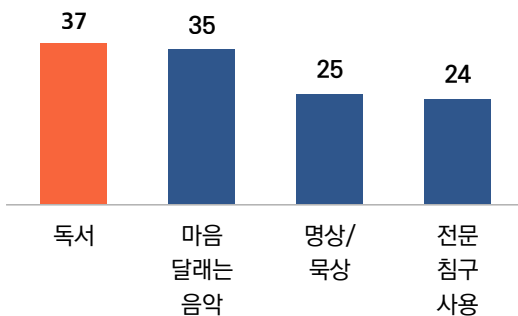
4



## 수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1위, ‘독서’와 ‘음악’

- 수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는 ‘독서’ 37%, ‘마음 달래는 음악’ 35%, ‘명상/묵상’ 25%, ‘전문 침구’ 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수면 질 향상을 위한 방법(상위 4위)



\*자료 출처 : Philips, '2021 Global Sleep Survey', 2021. 3.10 (13개국 18세 이상 성인 13,000명, 웹 조사, 2020.11.12.-12.07)

1

직장인 '임금 vs 물가 vs 아파트'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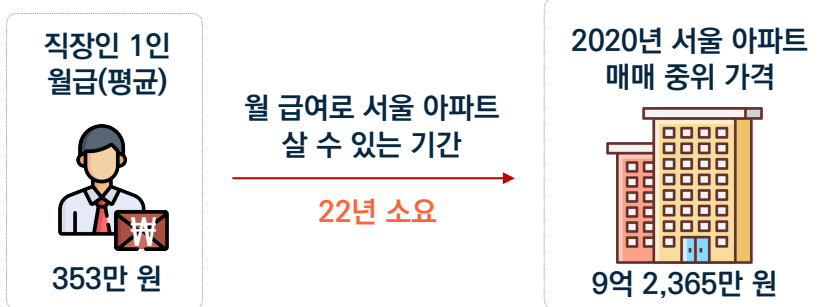


직장인,

# 서울 아파트 구입하려면 22년 월급 모두 저축해야!

-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성실근로자 올리는 5대 요인'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9억 2,365만 원, 2020년 1인당 근로자 월급 총액은 353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직장인 한 명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22년 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직장인 월급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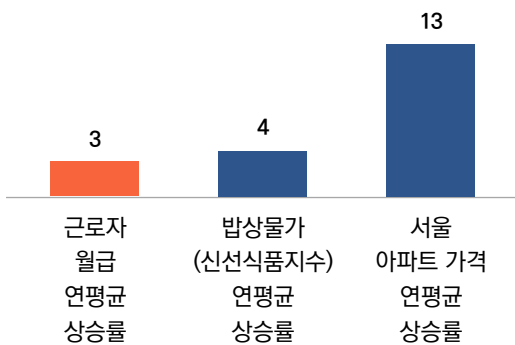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성실 근로자 올리는 5대 요인 보도자료', 2021.3.22.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소스 인용)

## ● 2015~2019년 5년간, 근로자 임금 연평균 3%, 밥상 물가 4%, 서울 아파트값 13% 올라!

-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근로자 월급의 연평균 상승률 3%, 밥상 물가로 대표되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연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연평균 상승률은 13%, 전국 집값 연평균 상승률은 7%였다.
- 근로자 월급, 밥상 물가, 아파트 가격 중 근로자 월급 연평균 상승률이 가장 낮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15-2019 5년 간 주요 지표 연평균 증가율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성실 근로자 올리는 5대 요인', 2021.3.22. (KB주택가격동향 인용)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 [왜 40대만 박영선을 더 지지하나, 민심 요동치는데 굳건한 이유는?](#)

머니투데이\_2021.03.26.

일반 사회

### [청년 고독사](#)

중앙일보\_2021.03.27.

###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이유](#)

중앙일보\_2021.03.27.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조선일보\_2021.03.30.

### [산부인과 찾아 차로 1시간... 30개 市·郡 분만시설 없다](#)

조선일보\_2021.03.30.

### [결혼 안 한 30대 '캥거루족' 54.8%... "부모에게서 독립 못 해"](#)

연합뉴스\_2021.03.30.

### [지난해 중·고교생 활동량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의존 과해](#)

연합뉴스\_2021.03.30.

### [요즘 이혼 공식은 '나이 들고, 아이 크면, 싸우지 않고'](#)

동아일보\_2021.03.27.

### [환갑 넘어도 자녀 대학 뒷바라지... 청년빈곤·실버파산 동시 우려](#)

조선일보\_2021.03.28.

### [앱에서 여친 만났어요... 코로나가 더 키운 '온라인 데이트' 시장](#)

조선일보\_2021.03.26.

인구문제

### [인구 대재앙, 지금부터 대비해도 늦다](#)

조선일보\_2021.03.27.

### [산모 나이 43세·42세·40세... 35세 이상 출산이 34%](#)

조선일보\_2021.03.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술집은 망하는데 커피점은 그래도 늘었다](#)

중앙일보\_2021.03.30.

[2월 산업생산,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경기 회복세 강해져"](#)

연합뉴스\_2021.03.31.

[코로나가 끌어올린 지구촌 집값... "거품 초기" 경고](#)

동아일보\_2021.03.30.

[한국인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계획'이 없네](#)

조선일보\_2021.03.29.

기후환경

[기후위기 시대, 크리스찬이 사는 법\\_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

한국기독교공보\_2021.03.30.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비용들어도 멸종위기종 보호하겠다"](#)

뉴스핌\_2021.03.30.

국제

[미 종교시설 신도 가입률 지속적 하락...처음 절반 아래로](#)

연합뉴스\_2021.03.30.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코로나로 36년 늦춰진 '성평등 세상'](#)

경향신문\_2021.03.31.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재)기독교선교학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 (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준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지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지구촌교회, 이대식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69호-88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제 83호**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 제 85호**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 제 86호** | "코치님이 나무베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 | 초등학교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현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 제 87호** |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꼴로 '미세플라스틱' 먹고 있다! | 유튜브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 제 88호** | 2030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감,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껴
- 제 89호** | '통일 필요하다', 목회자 90%, 일반국민 53% |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남한의 2% 수준!'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